'피겨 퀸' 김연아 오서 코치와 결별

새로운 시험대 올라……결별 이유 놓고 진실 공방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면서 최고의 순간을 맛본 '피겨 여왕' 김연아(20·고려대)가 브라이언 오서(49) 코치와 결별하면서 새로운 시험대에 올랐다.

김연아의 매니지먼트사인 올댓스포츠는 24일 오서 코치와의 결별을 선언했다. 현재 토론토에 머물고 있는 김연아는 새로운 프로그램의 안무가 마무리될 때까지 크리켓 클럽에서 계속 훈련을 할 예정이다. 향후 훈련 계획과 코치 영입 문제는 차차 검토하기로 했다.

◇김연아와 오서 코치=김연아와 결별 사실이 알려진 오서 코치는 잠재력이 풍부한 김연아를 명실상부한 피겨계의 정상으로 올려놓은 공로자 가운데 한 명이다. 오서 코치는 지난 2006~2007시즌 김연아를 지도하면서 코치계에 첫발을 디뎠다.

현역 시절 '미스터 트리플 악셀'이라는 별명을 얻으며 남자 싱글 무대를 휩쓴 오서 코치는 김연아를 통해 코치로 또 다른 전성기를 펼쳤다.

김연아는 오서 코치의 가르침에 충실하게 따르면서 그랑프리 파이널 2연패(2006년, 2007년)를 비롯해 4대륙 선수권대회(2009년), 세계선수권대회(2009년) 우승을 일궈냈다. 지난 2월에는 피겨 스케이터라면 누구나 꿈꾸는 올림픽 금메달까지 거머쥐었다.

김연아는 "오서 코치와 처음 만났을 때는 쑥스러움을 많이 탔지만 대회 경험이 쌓이면서 성격도 바뀌었다. 이제는 많은 사람 앞에서 연기하는 게 좋아지고 익숙해졌다. 그래서 표현력도 더 좋아졌다"며 오서 코치의 지도력에 만족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결별 이유는..'진실 공방'= 김연아로서는 오서 코치와 헤어진 과정이 매끄럽지 않은 점도 심적 부담으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찰떡 궁합'을 자랑하던 양측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결별의 책임을 상대에게 미루며 사제 관계에 마침표를 찍었기 때문이다.

'피겨퀸' 김연아가 지난해 12월 15일 뉴욕주 레이크플래시드 '1980 링크'에서 열린 ISU 그랑프리 5차 대회 여자싱글 쇼트프로그램 경기를 마친 후 역대 최고점(76.28)인 점수가 발표되자 브라이언 오서코치와 함께 놀란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김연아의 매니지먼트사인 올댓스포츠는 24일 "23일 오서 코치로부터 더는 김연아의 코치직을 맡지 않겠다는 최종 통보를 받고 이 결정을 받아들였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올댓스포츠는 "오서 코치와는 지난 5월 다른 선수의 코치 제의설로 인해 서로 불편한 관계를 유지했으며 이런 관계로 인해 김연아는 지난 6월부터 사실상 혼자 훈련을 해왔다"고 전했다.

지난 4월 오서 코치는 김연아의 경쟁자인 아사다 마오(20·일본)의 코치를 맡게 될 것이라는 소문에 대해 "아사다의 코치를 맡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내게 1순위는 김연아다"라고 부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오서 코치는 "다른 선수와 문제는 결별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며 "김연아의 어머니인 박미희 대표가 갑자기 결별 통보를 해 깜짝 놀랐다"며 결별 책임을 김연아 측으로 돌렸다.

한편, 오서 코치와 결별함에 따라 김연아가 훈련 본거지를 크리켓 클럽에서 다른 곳으로 옮길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크리켓 클럽은 오서 코치가 소속된 곳이라 두 사람이 계속 같은 곳에서 훈련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김연아는 오는 10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올해 3번째 아이스쇼를 펼칠 예정이다. 김연아 측이 아이스쇼 같은 이벤트에 비중을 늘린다면 새로운 훈련 본거지로 피겨 관련 비즈니스가 발달한 미국도 후보지가 될 수 있다. /연합뉴스

석현준 조광래호 '새 킬러'

〈아약스〉

이란전 대비 박지성 등 해외파 14명 소집

조광래 축구대표팀 감독이 내달 7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이란과 친선경기를 위해 박지성(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등 해외파 14명을 불러들이기로 했다.

네덜란드 명문클럽 아약스 암스테르담에서 뛰는 열아홉 살 유망주 석현준은 처음으로 A대표팀의 호출을 받았다.

대한축구협회는 24일 "이란과 친선경기를 위해 조광래 감독이 소집을 요청한 해외파 선수 14명의 소속 구단에 협조 공문을 보냈다"고 알렸다.

주장 박지성을 비롯해 이청용(볼턴·이상 잉글랜드)과 기성용, 차두리(이상 셀틱·스코틀랜드), 박주영(모나코·프랑스), 석현준(아약스·네덜란드) 등 유럽에서 뛰는 선수 6명과 이영표(알힐랄·사우디아라비아), 이정수(알사드), 조용형(알라이안·이상 카타르) 등 중동파 3명, 곽태휘(교토), 김보경(오이타), 박주호(이와타), 조영철(니가타), 김영권(도쿄·이상 일본) 등 일본 J-리그에서 활약하는 5명이 '2기 조광래호'에 승선한다.

조광래 감독의 국가대표팀 사령탑 데뷔전이었던 지난 11일 나이지리아와 친선경기에 참가한 국외파 선수 중에서는 이근호(감바 오사카)와 김민우(사간 도스)가 제외됐다.

조광래 감독은 최근 일본으로 직접 건너가 이근호와 김민우의 경기를 지켜보고 돌아왔다.

조 감독은 대신 공격수 석현준을 불러들여 기량을 점검해볼 계획이다.

아약스의 유소년팀에서 입단테스트를 받고 지난 1월 정식 계약한 그는 지난 시즌 2군리그 9경기에 출전, 8골 2도움을 기록하는 등 1군과 2군을 오가며 가능성을 드러냈다. 올해 프리시즌에는 4경기에 출전해 5골 1도움을 올렸고 특히 지난달 24일 첼시와 친선경기에서 3-1 승리를 결정짓는 쐐기골을 터트려 주목을 받았다.

석현준

나이지리아와 경기 때 소집 요청을 받았지만 컨디션 조절을 이유로 합류하지 못한 미드필더 이청용도 이번에 조광래 감독과 호흡을 맞춘다.

독일 분데스리가를 떠나 스코틀랜드 셀틱으로 이적해 소속팀 적응이 필요했던 수비수 차두리도 나이지리아와 경기 때는 뽑히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소집 명령을 받았다. 나이지리아와 경기에서 A매치 데뷔전을 치르고 일본 J-리그에서 최근 2경기 연속 2골을 넣는 등 맹활약하는 공격수 조영철도 다시 조 감독 앞에 선다. /연합뉴스

가장 눈에 띄는 축구대표는 '윤빛가람'

팬 설문…백지훈 2위·전남 지동원 4위

축구팬들은 지난 11일 나이지리아와 평가전을 치렀던 '1기 조광래호'에서 윤빛가람(20·경남)을 가장 눈에 띄는 선수로 꼽았다.

축구월간지 베스트일레븐(www.besteleven.co.kr)이 포털사이트 네이버(www.naver.com)와 지난 6일부터 16일까지 '조광래호 1기 멤버 중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은?'이라는 주제로 벌인 설문조사에서 전체 응답자(9천477명) 가운데 가장 많은 5504명이 윤빛가람을 뽑았다고 24일 밝혔다.

베스트일레븐은 "윤빛가람이 가장 많은 표를 얻은 것은 어린 나이에도 경남 돌풍의 중심이 됐다"며 "빠르고 세밀한 패스 플레이와 생각하는 축구를 추구하는 조광래 감독의 스타일에 가장 최적화됐을 뿐 아니라 나이지리아전에서 선제골을 기록하면서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윤빛가람의 뒤를 이어 백지훈(수원)이 980표(10.3%)의 지지를 받아 2위에 올랐고, 남아공 월드컵에서 본선무대를 밟지 못했던 이근호(감바 오사카)가 871표로 3위를 차지했다.

윤빛가람

지동원

이어 지동원(전남·793표), 곽태휘(교토·565표), 김민우(사간 도스·257표), 조영철(니가타·204표), 홍정호(제주·185표), 김영권(도쿄·118표) 등이 뒤를 이었다. /연합뉴스

이원학, 국제정구대회 남자단식 우승

이원학(달성군청)이 제7회 헝가리컵 국제정구대회 남자단식 우승을 차지했다.

이원학은 24일 헝가리 부다페스트 그랜드파크 슬램 정구장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남자단식 결승에서 이수열(달성군청)을 3-1로 물리쳤다.

복식에서는 이수열-한학범(이상 달성군청)이 한재원-백두성(이상 수원시체육회)을 4-2로 꺾고 우승했다.

이 대회에는 한국과 헝가리 외에 체코, 폴란드, 독일, 영국, 스페인, 네덜란드 등 8개 나라가 출전했다. /연합뉴스

최대한, 청소년올림픽 사격 동메달

한국이 제1회 청소년올림픽 사격에서 메달을 추가했다.

최대한(17·정선고)은 24일 싱가포르 스포츠스쿨 사격장에서 열린 남자 10m 공기권총에서 본선과 결선 합계 671.6점을 쏴 동메달을 획득했다.

우크라이나의 데니스 쿠슈니로프는 합계 676.3점으로 금메달을 차지했고 브라질의 알메이다 펠리페는 676.0점으로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로써 한국은 금메달 10개, 은메달 2개, 동메달 4개를 수확하며 국가별 메달 순위에서 종합 3위를 지켰다. /연합뉴스

北 정대세, 독일 리그 데뷔전서 2골 폭발

독일 프로축구 2부리그에 진출한 북한 축구대표팀 공격수 정대세(26·VfL 보훔)가 정규리그 첫 경기에서 두 골을 몰아넣으며 화려한 데뷔전을 치렀다.

정대세는 24일 오전(한국시각) 독일 보훔 레비어파워 경기장에서 열린 TSV 1860 뮌헨과 2010-2011시즌 독일 프로축구 2부리그 1라운드 홈 경기에서 결승골을 포함해 혼자 두 골을 넣어 보훔의 3-2 승리를 이끌었다.

이날 풀타임을 뛴 정대세는 1-1로 맞선 전반 38분에 이어 후반 1분 연속골을 터트려 뮌헨의 추격을 따돌리는데 앞장섰다. 북한 국가대표인 정대세는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에 참가하고 나서 일본 가와사키 프론탈레를 떠나 보훔에 둥지를 틀었다.

이후 프리시즌에서 4경기 연속골을 터트리는 등 빠른 적응으로 독일에서 첫 시즌에 대한 기대를 부풀렸다. /연합뉴스

무등빌딩임대

• 최상의 업무지역,
• 금융지역,상업지역
• 지하철역세권
• 신형 주차시설 완비
• 중앙공급식 냉·난방
• 탁월한 무등산 조망권

• 면적 330평 / 층 (분할임대 가능)
• 용도:사무실,판매시설

임대문의 062)222-0527

자본감소 및 주권제출공고

본 회사는 2010년 8월 24일 주주총회결의로 자본의 총액 금 1,300,000,000원중 금 1,000,000,000원정(보통주100,000주)을 감소하여 금 300,000,000원정으로 하고, 그 방법으로 1주의 금액 금 10,000원을 1:4.333비율로 무상소각하여 발행주식 총수를 보통주 130,000주를 30,000주로 감소할 것을 결의하였으므로 구주권을 가진 사람은 이 공고의 게재일로 부터 1개월 이내에 회사에 제출하시고 또한 자본감소로 인하여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 게재일 익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당 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라와 이에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24일

애내스개발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동 660-24 301호

대표이사 점찬교

자본감소 및 주권제출공고

본 회사는 2010년 8월 24일 주주총회결의로 자본의 총액 금 3,500,000,000원정 중 금 3,150,000,000원정(보통주315,000주)을 감소하여 금 350,000,000원정으로 하고, 그 방법으로 1주의 금액 금 10,000원을 1:10비율로 무상소각하여 발행주식 총수를 보통주 350,000주를 35,000주로 감소할 것을 결의하였으므로 구주권을 가진 사람은 이 공고의 게재일로 부터 1개월 이내에 회사에 제출하시고 또한 자본감소로 인하여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 게재일 익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당 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라와 이에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24일

보배건설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동 660-24

대표이사 점찬교

상속한정승인공고

광주지방법원 가정지원

사건번호 : 2010느단 1084

사 망 자 : 신인철 (731126-1624615)

최후주소 : 광주 북구 두암동 584-8

등록기준지 : 전남 담양군 수북면 개동리 691

위 망 신인철의 상속에 대하여 상속인은 민법 제 1028조에따라 한정승인 하였으므로 민법 제 1032조(채권자에 대한 공고,최고)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신고기한(공고일로부터 2개월)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2010년 8월 25일

• 공 고 인 : 1.공은연, 2.신채원, 3.신채리 미성년자인 최구인 2,3의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공은연

• 한정승인수리일 : 2010년 8월 11일

• 공고기간 : 2010.08.25 ~ 2010.10.24

• 신 고 처 : 광주 북구 오치동 1035-16 레드빌 104호 공은연(010-9979-8788)

분할합병 공고

(주권제출 및 채권자이의제출공고)

주식회사 선일(이하"갑"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동부전력(이하"을"이라 한다)은 서기 2010년 08월 23일 각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을"의 전기공사업 영업부분을 분할하여 그 분할된 재산으로 "갑"과 분할합병하고, "을"은 존속하기로 하는 분할합병계약서를 승인하였으므로 이 회사 분할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게재일 익일부터 1개월내에 본 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각사의 주주는 해당사에 주권을 제출하시기 바라와 이에 공고함.

2010 년 8 월 25일

"갑" 주식회사 선일

전라남도 순천시 중덕동 1278-26

대표이사 김 인 규

"을" 주식회사 동부전력

전라남도 순천시 덕암동 375-18

대표이사 안 종 진

光州日報 광고접수안내

구직 · 운전 · 모집 · 초빙
영업 · 모임 · 매입 · 매매
임대 · 전세 · 부동산

이메일: dd8111@hanmail.net

◆광주은행 : 001-107-228160
◆농 협 : 617-01-108334
※예금주 : (주)광주일보사

• 직통 : (062) 227-9600
• FAX : (062) 227-9500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10-116호

분 묘 개 장 공 고(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공고하오니 연고자나 관리자가 있을 경우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또는 해당 공사 현장사무소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공고 기간내에 신고자가 없을 경우 무연분묘로 간주, 임의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또한 이의의 동일 지번 내에 추가 발견되는 분묘도 본 공고에 갈음합니다.

1. 분묘소재지 및 기수

공사명	분묘의 소재지	분묘기수	분묘번호	비고
담양-순창	담양군 금성면 봉서리 14	3	209, 210, 211	
	담양군 금성면 봉서리 산20-12	4	212, 213, 214, 215	
	담양군 금성면 봉서리 산22-1	1	216	

2. 개장사유 : 담양-순창 도로확장공사에 편입
3. 개장후 안치장소 : 납골당
4. 개장후 안치기간 : 안치일로부터 10년
5. 공고기간 : 2010. 08. 25 ~ 2010. 11. 24.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6. 개장방법 : 사업시행자가 임의개장
※ 공고기간 중 연고자가 나타날 경우에는 연고자가 개장
7. 신고처
- 담양-순창 : 현장사무소(☎ 061-381-1178),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 (☎ 063-850-9166)

2010. 08. 25.

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완도개발공사 임원 공개모집

완도개발공사 임원(사장, 이사) 직위에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을 하오니 전문성과 역량을 지니신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1. 임원정족수 및 인원 : 사장(1명), 비상임이사(1명)
2. 임용기간 : 임명일로부터 3년
3. 임원정족수 주요 직무내용
○ 도시개발 등을 위한 토지의 취득, 개발, 공급 및 관리
○ 민간투자유치 연계 지역개발 촉진사업 등
4. 응모자격 : 재임중기업법 제20조의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자로서 사장은 다음 자격요건 (가~나)중 최소한 하나를, 비상임이사는 다음 자격요건중 "다"호를 갖춘 경우 응시할 수 있음
가. 민간분야 기준
○ 국가·공공기관 및 지방공사·공단 또는 민간기업의 임원급이상 또는 선임연구위원·부교수 이상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나. 공무원경력 기준
○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무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지방공기업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다. 기타(비상임이사에 한함)
○ 세무사 또는 회계사
5. 임용자의 임용예정 및 보수
○ 계약에 의하여 3년 계약(성과평가결과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가능)
○ 연봉(사장에 임명된 임용예정자의 능력, 경력 등을 고려하여 별도 결정)
※ 근무지 :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로 61, 완도개발공사
6. 지원서류 접수
가. 접수기간 : 2010. 8. 24(화) ~ 2010. 9. 7(화) 17 : 00까지
나. 접수방법
○ 방문접수, FAX 또는 우편접수 : 접수 마감일 까지 도착분에 한함
FAX : 061-550-5089/ 접수처 :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로 61, 완도군청 전략사업과
다. 제출서류
○ 지원서(사진부착) 1부 ※ 양식은 완도군청 홈페이지(http://www.wando.go.kr)에서 다운받아 작성
○ 직무수행계획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 직무수행계획서는 특별한 양식 없이 임원지원자위원회 담당업무에 대한 추진계획, 수단, 추진일정 등을 A4용지 5매 이내로 기술하거나, 5매 이상인 경우에는 ①~③항의 요약서를 직무수행계획서 앞부분에 포함하여야 함
○ 최종학력증명서 1부 ○ 경력증명서 1부 ○ 관련 자격증 각 1부(소지자에 한함)
7. 선발시험 방법 및 합격자 발표
가. 1차 시험(서류심사) : 응모자가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심사
나. 2차 시험(면접심사) : 경력(임원의 산업별 체류과 담당 공사업무의 조기추진 등 임원을 기준) 위해 (면접심사)
다. 최종합격자 발표 : 2010년 9월 18일(개별 서면통지)
8. 기타 문의사항은 완도도청 전략사업과 투자개발담당 (☎ 061-550-512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0년 8월 24일

완도개발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

책임제한절차개시 공고

당원 2010책1호 책임제한절차개시 신청사건에 관하여 책임제한절차를 개시하였으므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공고한다.

- 다 음 -

1. 책임제한절차개시결정 일시 : 2010. 8. 10. 11:00
2. 가. 신 청 인 : 강규옥
부산 사상구 학장동 168 학신벽산아파트 106동 902호
대리인 변호사 문광명, 권태일, 박한나, 박세연
나. 수익재무자 : 한국해운조합
서울 강서구 등촌 3동 660-10
대표자 회장 박 용 진
3. 주문 : 별지 1. 기재 선박의 별지 2. 기재사고로부터 발생한 유류오염손해에 관한 채권에 대하여 책임제한절차를 개시한다.
4. 관리인 : 변호사 나양경(주소 : 목포시 용해동 807-1)을 관리인으로 선임한다.
5. 책임한도액 : 83,000 계산단위(국제통화기금의 1특별인출권에 상당하는 금액)
6. 제한채권의 신고기간 : 2010. 9. 28. 14:00까지로 한다.
7. 제한채권의 조사기일 : 2010. 10. 12. 14:0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제2호 조정실
8. 신청인 또는 수익재무자에 대한 제한채권이 있는 자는 그 채권을 제6항 기재의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2010. 8. 2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제 2민간부

재판장 판사 양 형 권
판사 안 영 화
판사 강 문 희

[별지 1]

선박의 표시

선 명	"59은혜"호	길 이	20.98미터
종 류	기선	너 비	5.50미터
선 적 항	부산광역시	길 이	2.50미터
선 질	강	건조년도	1973년
총 톤 수	46톤		

[별지 2]

사고의 내역

위 59은혜호가 2010. 4. 8. 22:30경 전남 신안군 지도읍 송도선착장 부두에 대기하고 있던 중 선체바닥이 해저에 접촉하면서 우현으로 심하게 기울어져 기관실 및 연료유 탱크에 해수가 유입되면서 침몰함에 따라 선내의 연료유와 윤활유가 해상에 유출되어 인근 해역이 오염된 사고. 끝.